



익산 황등면 의용소방대, 코로나19 방역 동참

익산 황등면 남·여 의용소방대 대원 35명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관내 전체 지역에 대한 방역활동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의용소방대원들은 특히 다중이용시설인 재래시장, 마을버스정류장과 취약계층인 요양원, 마을회관 등을 중심으로 지난 7일부터 매주 2회(수요일, 토요일)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강길용 남성의용소방대장과 김영미 여성의용소방대장은 "의용소방대원들이 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며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위기상황을 이겨내자"며 화이팅을 외쳤다. /익산=장양원 기자



남원농기센터, 직원들 농산물 꾸러미 구매 앞장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우)는 지난 9일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소규모 농산가공품 생산농가들은 경제위기가 바로 생계로 이어지는 위험에 처해있음에 자체모금운동을 통해 농산물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센터 직원들은 그중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의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주고 싶다는 뜻을 모으고, 직원들은 한마음으로 개인당 3만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 (누룽지, 표고버섯차, 생강칩, 블루베리잼, 복숭아즙, 사과즙)를 구매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서 도통지구대, 순찰차탐재장비 확인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대장 이동권)는 최근 112신고현장 출동 경찰관들의 안전확보와 사건처리 시 증거품 보존 등을 위해 순찰차에 탑재중인 장비를 점검했다. 특히, 휴대용 소화기, 구급약품함, 폴리스라임과 같은 기본적인 장비는 물론, 불꽃탐지기, 안전경고등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2차사고를 방지 할 수 있는 장비를 탑재했으며, 코로나19를 예방 할 수 있는 비접촉체온계 및 D형 보호복도 준비해 어떠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권 대장은 이번 정비점검에 대해 "112신고출동 등 모든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며, 직원들의 마음가짐 또한 해이해지지 않도록 단단히 다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예비맘들 건강은 우리가 지킨다'

순창보건의료원, 지역 거주 임신부에 마스크 배부

순창군보건의료원은 지난 10일 순창 예비맘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키고자,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임신부 75명에게 마스크를 1인 3매씩 배부했다. 마스크 배부에 나선 보건의료원은 임신부가 배부장소로 직접 내방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우편을 이용하여 코로나 19 감염병 안내문을 동봉해 대상 임신부에게 발송했다. 순창읍에 거주하는 임신부에게는 우편을 통해 마스크를 배부했고, 먼 지역 거주 임신부에게는 관할 보건지소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마스크를 배부하고 있다. 이번 마스크 배부는 5부제 실시로 우체국과 약국 등지에서 과거처럼 길게 늘어선 인파가 많이 줄어, 마스크 사는 불편함이 과거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이동에 제약이 있는 고위험군 임신부들을 위해 보건의료원이 계획했다. 순창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임신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마스크를 배부



했다"면서 "앞으로 굳은 군민의 안전을 위한 마스크 확보는 물론 추가로 편성된 예비비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익산경찰, 청소년 비행예방... 선도·보호 실시

익산경찰서(서장 임성재)가 개학 연기와 학원 휴원 등으로 갈 곳 잃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선도·보호 활동을 실시했다. 익산서 학교전담경찰관들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 개학을 추가 연기하고 각종 교육기관이 휴원을 발표한 이후 갑자기 생겨버린 시간 공백을 메우기 위해 피시방과 코인노래방으로 모이는 청소년들의 탈선 방지를 위하여 유해업소 주변 순찰 활동을 강화했다. 이날 순찰활동은 PC방, 편의점, 마트, 코인노래방을 방문하여 업주들을 대상으로 출입시간 제한 및 청소년보호법 준수를 당부하였고, 모험동 학원가, 도서관, 공원 일대 가시적 순찰활동을 통해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귀가조치시키고 학교폭력 및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였다. /익산=장양원 기자

농협임실군지부·농축협, 임실군에 코로나19 극복 성금 전달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지부장 이희운)와 임실관내 4개 농·축협은 11일 임실군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쾌척했다. 이날 임실군지부는 군수실을 찾아 심 민 군수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지역 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침체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보탬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전달식에는 심 민 군수와 이희운 지부장과 임실군조합운영협의회 의장인 최동선임실농협 조합장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희운 지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취약농가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심 민 군수는 "코로나로 인해 지역경제가 너무 악화되고 있어 걱정이 큰 데 이렇게 마음을 써주셔서 감사하



다"며 "성금이 뜻깊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소방서, 논·밭 태우기 자제 당부

남원소방서가 건조한 봄철 날씨에 의한 산불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산 인근의 논·밭두렁 태우기를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산불원인은 대부분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신고하지 않고 산림 인접지역 및 논밭에서의 소각행위로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조폐에 의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진장소방서, 해빙기 대비 소방용수 시설 점검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11일, 봄철 해빙기를 맞아 화재현장 초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위치파악 등 일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용수시설은 보다 신속하게 소방차량에 물을 공급받기 위해 관내 적재적소에 배치돼 있는 중요 소방시설로 화재 발생 시 필수적인 시설이다. 이번 점검은 관내 소방용수시설 582개소(소화전529, 급수탑1, 비상소화장치52)에 대해 동절기 소방용수시설의 원활한 사용과 고장시설에 대한 조속한 정비를 통해 소방용수의 안정적 현장급수 체계를 체계화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용수시설별 고장현황 및 사용가능 여부 확인 △소화전 제수변 점검 △사용상 장애 요인 조치 △조수부에 누락된 신규 소방용수시설 파악 관



리 △소방차량의 진입거부, 주변 장애물 제거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무주=전문서 기자

순창소방서, 의소대와 함께하는 산불예방순찰

순창소방서(서장 김현철)와 순창의용소방대연합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는 동시에 봄철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산불예방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산불 발생 원인으로 담뱃불, 소각 등 부주의가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철을 맞아 지난 11일 순창의용소방대에서는 금산과 야미산을 찾아 산불예방순찰을 실시했으며, 소방서에서는 산불 대비 대응태세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체계 정비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논·밭두렁 소각 출동 시 화재예방 등 산불 예방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Advertisement for 'Imseol Cheese' (임실치즈) featuring various cheese products and a scenic background of a cheese farm. Text includes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and '임실치즈'.